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SIMPAC그룹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원가경쟁력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조업기술 개선을 통한 고순도 페로실리콘 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오늘의 성과를 넘어서 더 높은 시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FeSi



SIMPAC STORY

2020 | VOL. 50



Innovation × Communication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비상하다

2020 | VOL. 50

SIMPAC STORY

Innovation × Communication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비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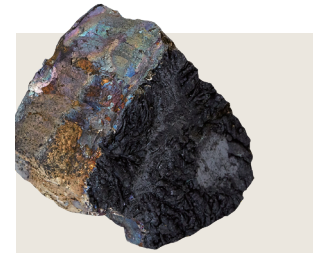
FOCUS ON



04

SUCCESS STORY

SIMPAC 메탈BU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성장 스토리와 시너지 효과
집중 분석



10

제품탐구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핵심 제품과 성장 동력
심층 소개

12

10문 10답

SIMPAC의 성장과 함께
소통을 주제로 진행한
현장감 있는 인터뷰

14

SIMPAC News

INSIDE SIMPAC



16

현장속으로

리스텍비즈의 현장을 찾아
도전과 성장의
스토리를 듣다



22

심팩 인사이드

SIMPAC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심봉사' 봉사단 소개



26

공감토크

생산팀의 효율적인
소통 노하우와
애환을 공유

OUR STORY



32

슬기로운 직장생활

SIMPAC인들을 위한
업무 효율화와 긍정적인
조직생활을 위한 큐레이션

36

심팩 Talk Talk

올바른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조직문화 설문조사



42

SIMPAC_STARGRAM

'소통'을 주제로
SIMPAC인들의
일상을 공유

44

우리들의 이야기

CONTENTS



통권 50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터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02-3780-4923 dylee@simpac.co.kr

㈜SIMPAC 프레스BU

남윤기 대리 032-510-0024 yknam@simpac.co.kr

김희리 사원 032-510-0040 hyrkim@simpac.co.kr

㈜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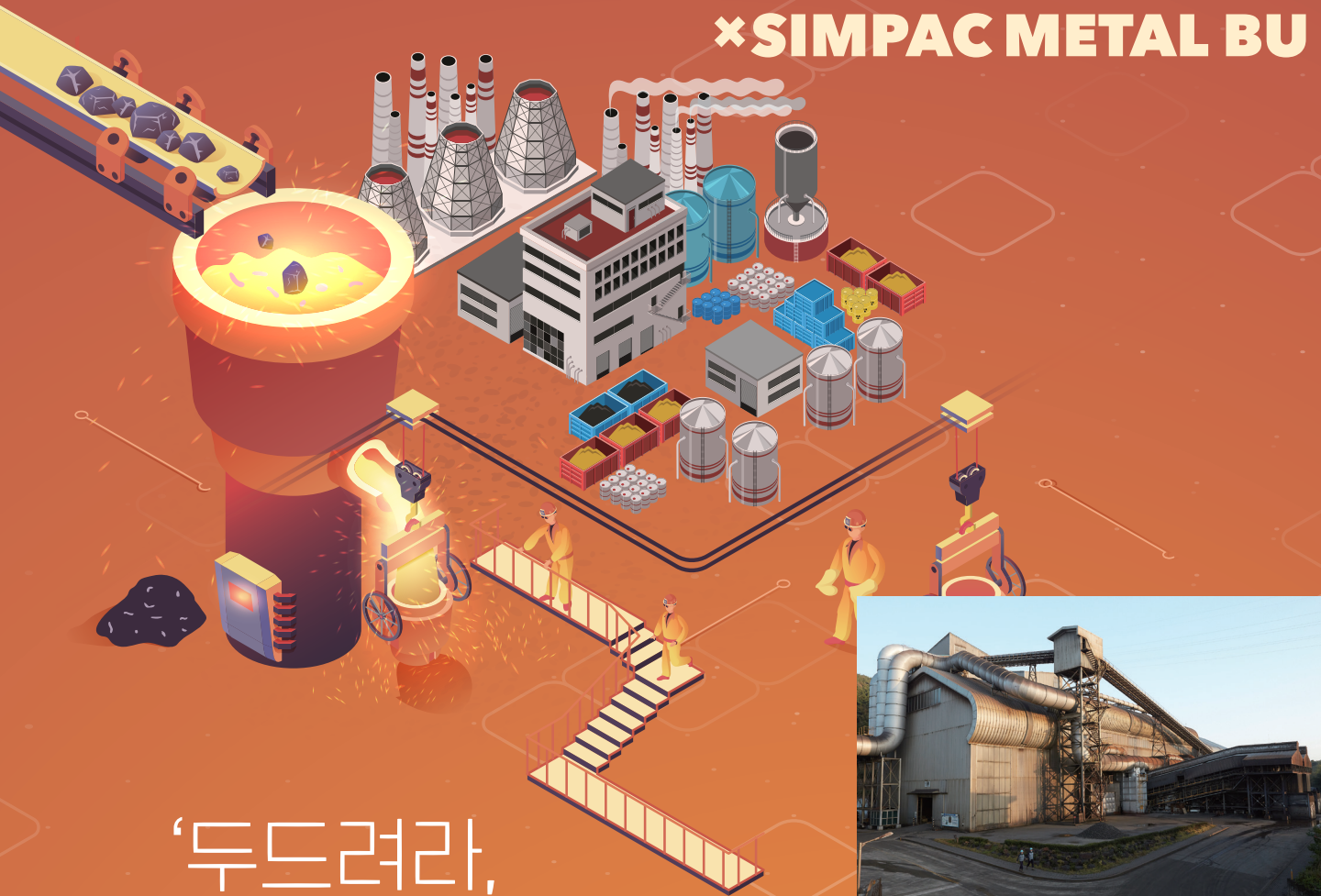
고현정 사원 054-271-8932 hjko@simpac.co.kr

㈜리스텍비즈

김영철 과장 061-797-2012 yckim@simpac.co.kr

FOCUS ON

SUCCESS STORY ×SIMPAC METAL BU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합금철 제조의
역사를 다시 쓰다

60여년간,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왔고,
숨을 고르느라 잠시 뒤흠쳐진 적도 있었다.
우리의 오랜 질주는 믿음과 기술로
만들어낸 성과이자 가치였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발은 더없이 강인해졌다.
SIMPAC 메탈BU의 이름으로 써 내려온
역사의 한 페이지는, 오늘도 계속된다.



(좌측부터) 정창배 전무, 합금철영업팀 이장우 팀장



(좌측부터) 전기로 C조 인성교 선임, 김용호 주임,
생산총괄 남호기 기장

품질 향상과 외연확장으로 얻은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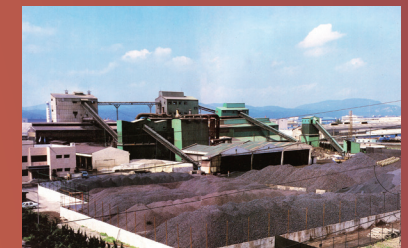
SIMPAC 메탈BU의 역사는, 1959년 설립된 국내 최초 합금철 제조사인 한국전기 야금으로부터 출발한다. 합금철은 철강 제련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강의 성질을 개선코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욱 뛰어난 철강 생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합금철 제조사는 철강 산업의 주요 협력자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제 몫을 톡톡히 해왔다. SIMPAC 메탈BU 역시 그 이름을 산업계에 각인시키며, 차근차근 성장궤도를 밟았다.

1976년 KS 기술인증 획득과 1979년 포항 제1공장 준공, 1991년 포항 제2공장 준공, 1996년 포스코 STS DUST 용해 전기로 신설, 2011년 당진공장 준공 등을 통해 합금철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을 이뤄냈다. 꾸준한 고부가가치 신 강종 개발과 고분자화학 사업 진출로 제조 품목 다변화와 외연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중저탄소 페로망간, 고탄소 페로망간, 실리콘망간, 페로니켈크롬 등 연간 28만 톤의 합금철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제강용 제지용 롤을 비롯해 폴리우레탄 스크린 등의 생산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8년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몇 차례의 사명 변경과 흡수합병을 거쳐 2018년 SIMPAC 메탈을 SIMPAC으로 통합. 지금의 SIMPAC 메탈BU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략적 통합을 통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의 거대화도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 관련 재원 마련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다변화할지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은 SIMPAC 메탈BU와 SIMPAC의 통합에 대해 굵직한 포부를 밝혔다. 이런 포부를 안고 통합된 지 올해로 3년째. SIMPAC 메탈BU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과 손잡은 종합 합금철 메이커로 인정받고 있다.

- 1959 한국전기야금 설립
- 1974 한국합금철공업으로 사명변경
- 1976 KS기술 인증획득
- 1979 포항 제1공장 준공

1959 | 국내 최초 합금철 개발 및 상용화 |



성공 포인트: 믿음은 최선의 저력

SIMPAC 메탈BU의 지난 행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국내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과거 포스코의 포항 제철소 건립을 함께하며 두 기업 간의 관계를 돈독히 다졌고, 포항공장 준공으로 한층 빠르고 안정적인 합금철 공급에도 나섰다. 고객사의 사정과 애로를 지근거리에서 살피며, 지킬 수 있는 내용만을 약속했다. 초심 그대로 고품질 제품을 약속된 조건에 맞춰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다. 고객사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 덕분이었다.

“고객사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도 발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생산한 합금철이 차가운 철에 생명을 불어넣어, 고객사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고객사를 그저 제품을 납품하고 이익을 얻는 상대로만 봤다면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2006년 법정관리를 받던 전신(前身) 회사를 SIMPAC이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회사라는 애착심이 부족하고 파업 열기가 강했던 전신 회사 직원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SIMPAC의 말이 처음에는 거짓처럼 들렸지만요.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이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현장에 서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SIMPAC의 약속대로 생산 환경은 개선됐고, 생산력은 월등히 높아졌죠. 국내 최초 합금철 제조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되찾았습니다.”

합금철영업팀 정창배 전무의 말처럼 회사와 구성원 또 고객사 간의 믿음은, SIMPAC 메탈BU의 성장을 이끈 한 축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철강의 중심에서
SIMPAC 메탈BU는 더 큰
미래를 준비합니다.

SIMPAC 메탈BU는 3대 철강 메카로 불리는 포항, 광양, 당진 공장의 효율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합금철 시장에서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기술은 최고의 무기

기업의 가치는 기술력으로 증명된다. 아주 오래된 말이지만, 불변의 진리이기도 한 이야기. SIMPAC 메탈BU는 끈기 있는 기술개발과 과감한 시설 투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그 중 하나가 1996년 포스코 STS DUST 용해 전기로 신설이었다. 당시에는 망간 생산으로도 시장 확보가 가능했는데, 불필요한 곳에 돈을 들인다는 날 선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남보다 한발 앞서가자며 뜻을 모아 스테인리스 더스트를 제련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설비투자로 기술을 현실화시켰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포스코와의 독점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오는 성과를 기록했다.

망간계 합금철 중 탄소 관리에 유리한 중저탄소 페로망간 생산 기술도 우리의 큰 자산이다. 중저탄소 페로망간은 고급 강철 생산에 꼭 필요하며 그 수요도 높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술에 날개를 달아준 건 2011년 준공된 당진공장이다. 당진공장은 포항공장 내 전기로를 보완해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 중저탄소 페로망간 생산을 맡아, 매출 증대는 물론 종합 합금철 메이커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간 포항공장도 자원재활용 신사업 기술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페로니켈 정련 슬러지에 함유된 니켈을 용해 회수하는 페로니켈 임가공과 환원철 슬래그에 함유된 철을 용해 회수해 선철을 제조하는 기술이 그것입니다. 이 기술 개발로 영업이익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요. 합금철 시장을 대비해 전기로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생산본부 생산팀 안재형 과장은 합금철 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자원재활용 사업의 핵심인 용해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정창배 전무

SIMPAC 메탈BU의 경쟁력은 속도에 있습니다.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로 한발 먼저 정보를 얻어 정확히 시장을 분석, 원재료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생산 품목을 단시간에 조정하는 능력. 그 능력은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겁니다.

합금철영업팀 이장우 팀장

합금철 제조업이 IT 산업처럼 지속적 성장이 약속된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산업계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 SIMPAC이 적힌 명함 하나면 모두 알아보는 회사로 성장시킵시다.

1988

· 한합산업으로
사명변경

1991

· 포항 제 2공장
(고분자화학) 준공

1996

· POSCO STS Dust
용해 전기로 신설

2006

· SIMPAC그룹 계열사로 편입
· SIMPAC ANCR로 사명변경

2006 | 종합 합금철 메이커로 도약 |



더 높이 비상하는 글로벌 기업을 향해

SIMPAC 메탈BU는 올해 합금철 제조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 시장에 대한 목표는 여전히 상태다. 우리는 당진공장 준공으로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3~4년 간 수출에 정성을 쏟아왔다. 수출 비중이 늘면서 외형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외시장의 벽은 만만치가 않다. 이제 다시 전의를 가다듬고 해외시장 공략에 임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초기 트레이더를 거쳤던 간접판매 대신, 직접 글로벌 철강사를 공략해 협업 관계를 맺고자 한다. 현재 철강 산업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꾸준한 투자를 진행할 터다.

신기술 개발 못지않게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그간 다양한 국외 컨퍼런스 참여로 SIMPAC 메탈BU를 각인시키려 애썼고, 상당한 이미지 상승효과를 얻어냈다. 2007년 유럽 컨퍼런스 참여 당시가 좋은 예이다. 세계적 철강사인 TATA와의 미팅 5분 만에 퇴짜를 당했지만, 이제 TATA에서 먼저 미팅을 제안할 만큼 우리의 위치는 달라지고 있다.

국내 최초 합금철 제조사가 쌓아온 61년의 경험과 신뢰 가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온 SIMPAC의 이름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앞으로의 시간에도 SIMPAC 메탈BU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2008

· 코스닥(KOSDAQ) 상장

2011

· SIMPAC Metal로 명명
· SIMPAC ANC에서 SIMPAC Metalloy로 사명변경
· Asia 200 top-performing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로 선정(Forbes)

전기로 C조
인성교 선임



2016

· SIMPAC Metal을 SIMPAC Metalloy로 흡수합병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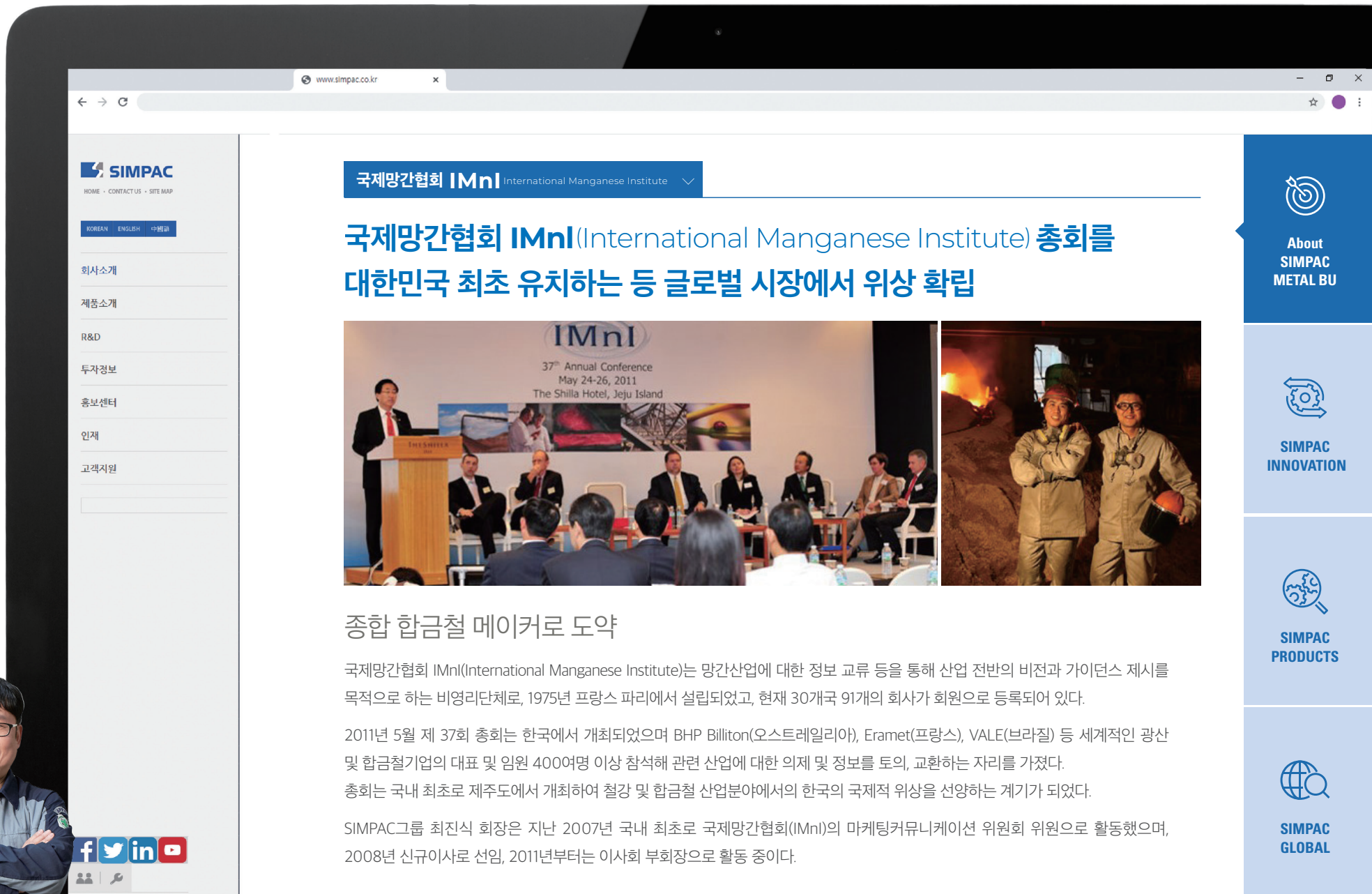
· SIMPAC Metalloy에서 SIMPAC Metal로 상호변경

2018

· SIMPAC Metal을 SIMPAC으로 전략적 통합

2018

| 글로벌 기업을 향해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금철 제조회사, SIMPAC 메탈 BU

SIMPAC은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제조회사로 오랜 업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뿐만 아니라 고품질 합금철을 생산하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뿐만 아니라 포항, 광양, 당진공장의 효율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합금철을 생산하고 국내 철강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SIMPAC의 주요 생산품은 페로망간(Ferro-Manganese)과 실리콘망간(Silicone-Manganese), 페로니켈크롬(Ferro-Nickel Chrom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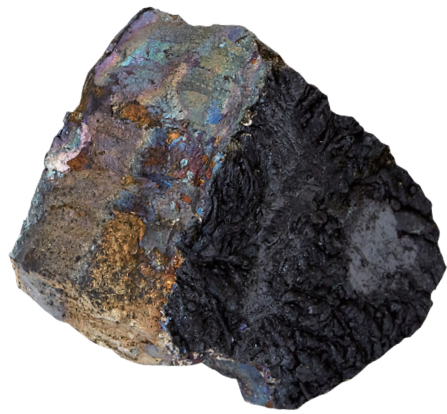


MC/LC FeMn

중저탄소 페로망간

탈산, 탈황제
자동차용 고급판재를
생산공정에 사용
망간성분 첨가

주요고객사 | 현대제철 등



전기로 C조 김용호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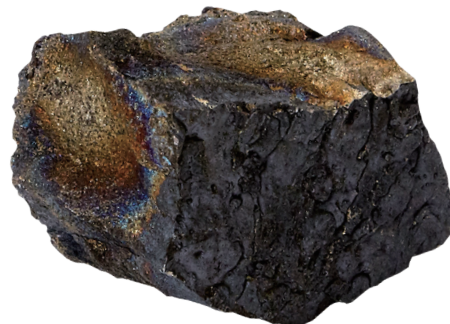


HC FeMn

고탄소 페로망간

탈산, 탈황제
일반 판재류 제조시
성질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금철

주요고객사 | 포스코, 현대제철 등



SiMn

실리콘망간

탈산, 탈황제
스테인레스강, 헝강 및 철근 등 건축용
강재 생산시 사용 실리콘 및
망간성분 첨가

주요고객사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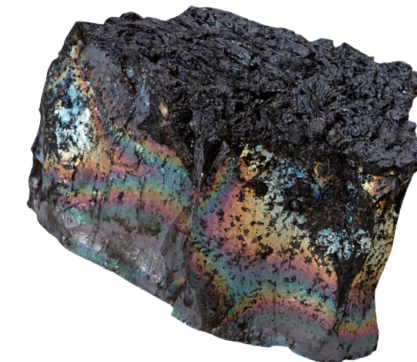


FeNiCr

페로니켈크롬

POSCO STS제강 NiCr원료로 공급
스테인레스강 생산시 사용
(303/304L 열연 및 냉연제품,
304LN 후판제품)

주요고객사 | 포스코



생산총괄 남호기 기장



전기로 C조 인성교 선임

세계 최고의 합금철,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

SIMPAC 메탈BU의 생산 현장에서 활약하는 베테랑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포항1공장 생산총괄 남호기 기장과 전기로 C조 김용호 주임·인성교 선임이 그 주인공. 세 사람의 얼굴에는 날카롭게 버린 기술력과 끈끈한 동료애를 공구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합금철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 SIMPAC 메탈BU

Q. 요즘 생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남호기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훌륭하게 이겨 낸 저력이 있다는 것을 현장 직원 모두가 알고 있기에, 맡은 바 묵묵히 일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죠.

김용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끼리의 우정과 협업 정신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만큼 단단합니다. 서로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웃으면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김용호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전기로를 절반가량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반면 포항1공장의 전기로 4기와 당진공장 전기로 2기는 여전히 실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회사의 저력을 실감하곤 합니다.

인성교
남호기 기장님과 저는 얼마 전 장기근속 메달을 받았습니다. 각각 30년, 15년 근속했는데요.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술과 노하우도 점점 늘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Q. 생산성 향상과 공장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남호기
2006년 메탈BU가 SIMPAC에 편입된 직후부터 QSS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덕분에 작업 환경이 매우 깨끗해졌고, 공정상 불합리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보완됐습니다. 특히 분진 문제를 빠르게 줄인 덕분에 동료들이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죠.

김용호
저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QSS 개선리더 9기로 활동했는데요. 전기로 2호기의 덕트를 개선해 생산성을 한층 높였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거둔 최대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성교
포항1공장은 SIMPAC 메탈BU의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작년 말에 각각 당진공장과 페로실리콘공장으로 인력이 많이 이동했고, 덕분에 신설 공장들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점이 이곳의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남호기
1959년 한국전기야금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술 혁신과 신강종 개발을 거듭해 페로망간·실리콘망간·페로니켈크롬 등 다채로운 제품군을 갖추고 수익성을 높여 온 것이 SIMPAC 메탈BU의 최대 경쟁력이 아닐까요?

+
Send

< SIMPAC 메탈BU

Q. 합금철을 생산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김용호
작년 9월에 기존 직원들이 페로실리콘공장으로 옮기면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요. 일을 가르치는 와중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동문서주한 3~4개월이 꽤 힘들었습니다.

인성교
이처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보다 다른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해와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져요.

Q. 생산 현장의 팀워크와 소통은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신지요?

남호기
출근한 직후부터 퇴근하기 직전까지 공장을 부지런히 돌며 밤새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발로 소통의 기회를 끊임없이 만드는 셈이죠.

김용호
교대 전 20분에 한데 모여 업무와 특이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나눕니다. 더불어 한 사람도 다치지 말고 퇴근하자는 다짐도 하죠. 저희에게는 이때가 가장 소중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인성교
일하다 보면 서로 부딪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러면 언제 화냈는 듯 그날 바로 풀리죠. 남자들의 진한 우정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웃음)

Q. 이번 기회에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호기
31년차 선배로서, 모든 일에는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김용호
마음 불편하게 일하지 말고, 서운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인성교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안전은 현장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Q. SIMPAC 메탈BU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호기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꾸준히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생산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최고의 제품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성교
더불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은 유기적인 협동이라는 점, 현장 직원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세 분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인성교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일했으면 합니다!

남호기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네요.

김용호
일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배포된 책자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독하려 합니다.

Q. 나에게 SIMPAC 메탈BU는 ()이다!

남호기
'기회'입니다. 31년이라는 긴 기간을 합금철 생산 현장의 전문가로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줬기 때문입니다.

김용호
역시 '최고'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합금철 생산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땀 흘리렵니다!

인성교
식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이제 동료들끼리도 호형호제하죠. 그렇기에 저에게 SIMPAC 메탈BU는 '가족'입니다!

+
Send

SIMPAC NEWS

SIMPAC 메탈BU 2020.09.20

👍 덕분에 챌린지



지난 9월, SIMPAC 송효석 사장과 임직원은 포스코 스테인레스 이주협 부소장의 지명으로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에 함께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 송효석 사장과 직원들은 이 지면을 빌려 한 목소리로 SIMPAC 직원 일동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갑작스런 코로나 19 위기속에서도 의료진분들 덕분에,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 덕분에, 묵묵히 현장에서 방역으로 노고가 많으신 분들 덕분에, 그리고 일상 속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

난 1월 말부터 전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방역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현재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주의하여 이 고비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다함께 노력하는 우리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IMPAC 메탈BU 2020. 10. 18

시민 구단 포항스틸러스를 응원합니다.

SIMPAC 메탈BU 포항에서는 직원 및 가족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유일한 프로 시민 구단인 포항 스틸러스를 응원하기 위해 매년 시즌카드를 구매했었다. 그러나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어 시민 구단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활기를 주었던 포항 스틸러스를 응원하기 위해 스틸러스 홈구장 광고 후원을 시작했다. 스틸아드(홈구장) 한 칸에 SIMPAC이라는 이름이 시민구단에게는 힘이 되고 SIMPAC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마치 전달 된 것처럼, 지난 10월 18일 일요일, 우리 회사 광고가 처음 등장한 날에 포항과 울산의 자존심이 걸린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은 4:0이라는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다. 우리 회사도, 포항 스틸러스도, SIMPAC 가족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승리의 기쁨으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기를 응원해본다.



SIMPAC 프레스BU 2020. 09. 01

SIMPAC 대통령 표창장 수상



지난 2020년 9월 1일 (주)SIMPAC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통계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통계의 날'은 1995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 조사에 대한 국민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표창장은 통계 작성에 적극 협조한 조사응답자 및 사업체, 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 작성기관 및 통계인프라 강화 기여자를 대상으로 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124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수여되었다. (주)SIMPAC은 매월 생산 및 조업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출함으로써 국가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온 노력을 인정받아 통계유공자로 선정됐다. 아쉽게도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소규모 행사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리스텍비즈 2020. 10. 30

화장품용 고순도 산화아연의 기술 교류를 위한 MOU 체결

리스텍비즈는 지난 10월 30일(금) 오전 10시에 코스맥스(주)와 양사 간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아연의 원활한 제조를 위해 기술 교류 및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RISTecBiz

리스텍비즈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도전과 성장"이라고 할수 있다.
SIMPAC의 가족이 된 이후 그룹 차원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도전정신을 불태웠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의 순도를 높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텍비즈

강력한 도전정신으로 혁신의 순도를 높이다



생산팀 변석진 사원

생산팀 최홍언 과장



ZnO

산화아연(zinc oxide)
분자량: 81.38g/mol
산소와 아연의 화합물로 가벼운 백색 분말
고무, 페인트, 세라믹, 유리, 사료, 화장품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원료로 사용



도전과 성장을 이끈 격려와 지원

2018년 10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스텍비즈는 도전과 성장을 거듭했다. SIMPAC 편입 직후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시작됐다. 생산한 고순도 산화아연을 분말 형태로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건조로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생산된 제품을 포대에 담고 로봇 팔로 적재하는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생산 공정 및 설비를 개선·보완하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설비 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비 관련 작업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는 게 생산팀 최홍언 과장의 설명이다.

"SIMPAC의 식구가 되기 전까지는 설비 투자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발적인 정비 상황과 일상 정비 시간이 늘어났고, 그만큼 회사의 생산성은 떨어졌죠.

하지만 우리 그룹은 달랐습니다. 건조로 개·보수 공사와 포장 자동화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해 주셨고, 생산성 향상과 정비성 안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죠. 회사의 도약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다 보니 일할 맛도 절로 나더군요.(웃음)"

작년 8월에 입사한 생산팀 변석진 사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작년 대거 투입된 새로운 설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내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문제가 생겨 생산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해 애를 태운 적도 있었다. 설비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지만, 현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 만도 한 상황이기도 했다.



폭넓은 산화아연 생산능력

리스텍비즈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40~99%에 이르는 다양한 순도의 산화아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설비 투자에 겁먹지 말고 실패에서 보고 배우라”며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모두가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품게 됐습니다.



“그때 최진식 회장님이 현장까지 직접 달려오셔서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설비 투자에 겁먹지 말고 실패에서 보고 배우라’며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이를 계기로 모두가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품으며 일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졌고, 공장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차별화된 생산능력으로 당당히 경쟁하다

전 직원이 30명인 소규모 계열사지만, 리스텍비즈는 타사가 흉내 낼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아연은 건식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건식 공정은 말 그대로 원료를 수분이 없는 건조 환경에서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산화아연에 함유된 중금속을 제거하기 힘들다. 반면 리스텍비즈는 건식 공정과 함께 특허 받은 습식 공정도 함께 운영한다. 원료를 녹인 물에 각종 약품을 첨가해 빼고 싶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자 변칙진 사원이 자부심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리스텍비즈는 고객사가 원하는 성분 그대로의 산화아연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순도 90% 산화아연이라도 중금속 함유량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 집니다. 산화아연은 화학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료에도 함유되어 일종의 지사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동물을 인간이 먹는 이상 중금속이 들어간 산화아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고객사가 원하는 바에 따라 40~99%의 산화아연을 다양하게 생산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성분을 선별 제거할 수 있는 습식 공정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산화아연 순도를 97% 이상으로 높은 ‘SC-1’ 제품과 순도 90%의 ‘SC-2’에 이어, 순도 65-75%의 ‘SC-3’ 제품을 지난 5월에 개발하여 8월 말에 성공적으로 납품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SC-1 Grade

97% 이상의 아연순도를 가진 제품
고무, 타이어, 사료, 화학공업용으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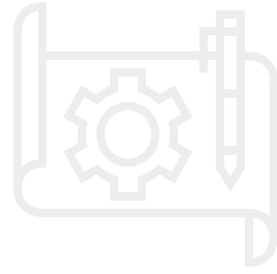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습식 공정**

특허 받은 습식 공정을 운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중금속을
선별,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리스텍비즈는 산화아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폐기물 내 성분 분석과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통과 도전정신으로 혁신을 일구다

직원 수가 적다는 것은 기업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리스텍비즈의 작지만 강한 면모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현된다. 다른 직원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내부의 혁신성을 한결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낚시·자전거 타기 등 업무 외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호회 형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변석진 사원은 이를 통해 별다른 무리 없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얼마 전 『그 회사는 직원을 설레게 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를 떠올렸는데요. 그만큼 사내 소통과 의견 교류가 잘 이뤄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모가 리스텍비즈를 ‘오래도록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싶어 내심 뿌듯했습니다.(웃음)”

원활한 소통을 중심으로 한 리스텍비즈 직원들의 도전정신은 여러 방면으로 다채롭게 빛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건조로 투입시 경사를 이용해 제품을 이송하며 발생하는 분진과 손실을 스크류 방식의 밀폐된 이동로로 대체함으로써 크게 줄였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느낀 불편을 적극적인 소통과 집단지성으로 해결했기에 더욱 뜻깊었다는 게 최홍연 과장의 이야기다.



SC-2 Grade

90% 아연순도를 가진 제품
동물용 사료 제조업으로 판매



30명
30명의 산화아연 제조 및 영업 전문가들이 생산팀, 생산지원팀, 경영지원팀, 영업팀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고품질의 고순도 산화아연을 24시간 생산하고 있다.

“을 9월에는 분말 형태의 산화아연이 아닌, 액체 형태의 염화아연을 최초로 납품했습니다. 습식 공정을 운영하며 생산된 중간 제품을 판매하여 우리 회사의 제품군을 한 발자국 넓힌 것인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생산 제품군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 크기를 지닌 산화아연을 나노 단위로 더욱 곱게 갈고, 산화아연 순도를 99%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시도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전이 리스텍비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거라 확신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도전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실패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려 한다면, 변화와 성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해야 혁신에 다가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리스텍비즈는 산화 아연의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을 향한 이들의 도전 정신이 지금까지처럼 오래도록 빛나기를 기대해 본다.



따뜻한  나눔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다

10월 31일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포항 SIMPAC 직원들과 가족들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러 사랑의 연탄 봉사에 참여했다. 오랜만에 코로나19로 한동안 하지 못했던 연탄 나눔을 할 수 있어서 함께 참여한 가족들도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아이들의 고사리 손에서 둔탁한 어른의 손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현장으로 지금 가보자.



나눔의 온도를 전하다

지난 10월 31일 토요일 이른 아침, SIMPAC 메탈BU 및 SIMPAC 인더스트리 공장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한데 모였다. 2014년부터 매년 회사 창립일을 기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19로 연탄 기부 손길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포항시 관내에서 행사로 진행되었다. 포항시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과 방역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포항 자원봉사 센터장인 권오성 센터장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직원과 직원 가족을 격려했다.



그리고 SIMPAC 자원봉사팀 심봉사 회장인 이승대 반장은 이른 아침에 가족들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모인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고, 윤정록 노조위원장은 가족과 함께 봉사하는 모범 가정이 더욱 늘어나도록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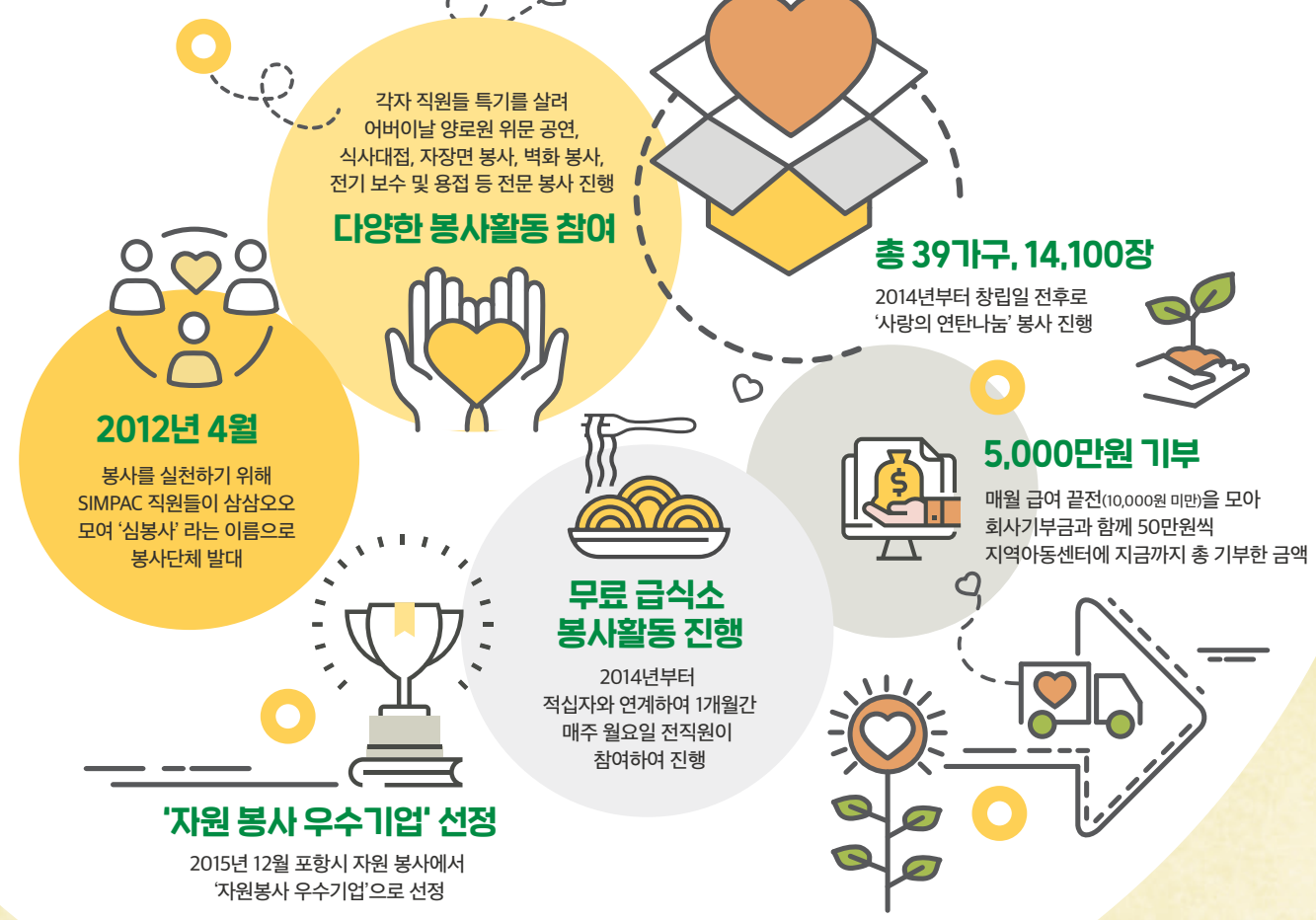


**따뜻한 세상이
그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이번 연탄나눔 행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등 6가구에 각 500장씩 총 3,000장을 전달하였다. 보통 방 한칸과 주방 한칸, 약간의 더운물을 위해 아끼고 아껴도 하루 약 8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이번에 전달한 500장의 연탄으로 이번 겨울을 온전히 넘길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이 그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자녀들도 평소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누리고 있는지 새삼 느끼는 하루였다고 한다.

**SIMPAC의
“심봉사”를
소개합니다**

**‘심팩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1등 SIMPAC을 향한 불꽃 튀는 노력

생산팀은 늘 치열하다.
여러 유관부서에서 노력한 성과가 마지막으로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생산팀은 늘 분주하다.
쉼 없이 돌아가는 현장은 하루하루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성취감과 보람은 배가 된다고 말하는
각 계열사 생산팀 4인이 말하는 생산팀의 희로애락을 들어보았다.

- 좌로부터
 > SIMPAC 메탈BU 포항생산본부 생산팀 | **조영문 과장**
 > SIMPAC 메탈BU ROLL생산본부 ROLL생산팀 | **김규찬 과장**
 >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 **김영일 차장**
 >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 생산팀 | **정설희 과장**



“**치열한 현장,
그 중심에 서다**
공정, 생산, 환경, 구매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생산팀에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업무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계열사 생산팀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영일 차장 : SIMPAC 프레스BU 생산팀은 프레스를 생산하는 팀으로, 기계를 조립하고 시운전한 후 고객사에 전달하여 설치 후 시운전하는 등의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배움의 터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생산팀에서 공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과장 : SIMPAC 메탈BU 롤사업부 생산팀은 산업용 롤에 고무나 우레탄을 피복한 후 최종 연마하는 공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의 환경관리 업무도 수행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생산관리와 더불어 환경관리 및 원료 및 소모품 구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문 과장 : SIMPAC 메탈BU 생산팀의 가장 큰 특징은 교대근무일 것 같은데요. 합금철을 생산하는 전기로 제련공정이 이뤄지는 SIMPAC 메탈BU 생산팀은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전기로가 가동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전기로는 일정 부분 예측이 필요하고 전체의 흐름이나 맥락을 파악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현장입니다.
생산팀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설희 과장 :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 생산팀 역시 원료 구매부터 조립, 설치시운전, AS를 전담하는 팀입니다. 생산팀에서 15년 근무하면서 영업, 품질, 생산 파트를 두루 경험했고, 현재는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IMPAC METAL BU
SIMPAC 메탈BU
ROLL생산본부ROLL생산팀
김규찬 과장



SIMPAC METAL BU
SIMPAC 메탈BU
포항생산본부 생산팀
조영문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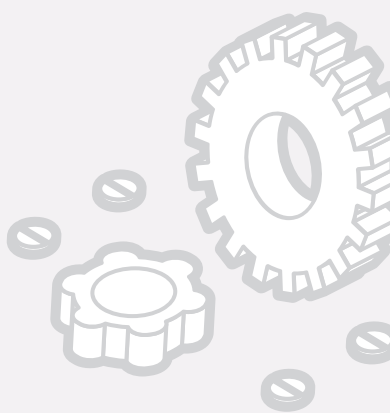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나
‘나만의 업무 철칙’이 있다면요?

김영일 차장 : 생산 현장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산팀은 ‘책임’과 ‘성실’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직원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생산팀은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팀원들끼리 업무를 상세히 공유하고,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며 생산에서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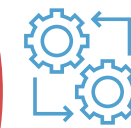
김규찬 과장 : 생산팀 하면 보통은 생산관리 혹은 생산설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건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였습니다. 기업의 제품 수준이 향상되려면 좋은 설비도 중요하지만,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경험, 생산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견학 등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문 과장 : 제 경우는 스스로에게 또 후배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떠한 업무든 어떤 의미에서 시작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소통하고 공감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좋은 결과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설희 과장 : 구매 업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발로 뛰며 협력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거든요. 발로 뛰며 영업 업무를 했던 경험이 구매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도전과
실험의 연속
고객사의 환경에 맞게 생산팀은
제품 개발 및 제조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결과물로 만족도 높은 기술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생산팀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
그리고 고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일 차장 : 생산팀은 그 어떤 팀보다 활동적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다양한 일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한번은 납기가 정해진 수출품의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과 밤새도록 고민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마무리 되어 수출이 잘 됐고 고객사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고되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김규찬 과장 : 저희가 납품한 롤이 고객사의 환경변화로 사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품 개발 요청이 오는데요. 개발하고 최종 테스트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일년까지 걸립니다. 여러 사람의 노고 끝에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여 고객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는 힘들지만요.

조영문 과장 :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접목하고 개발할 때가 가장 힘든 순간 아닐까 싶어요. 기술적인 문제든 설비나 비용적인 문제든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를 떠나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순간 쾌감을 느낍니다.

정설희 과장 : 간혹 고객사에서 AS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을 해체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협력사 직원들과 밤을 새서 일을 하는 동안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또 보람과 성취감도 많이 느꼈고요.

SIMPAC INDUSTRIES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 생산팀
정설희 과장



SIMPAC PRESS BU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김영일 차장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나 자신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이 있다면요?**

김영일 차장 : 유튜브나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진 기업 제품의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프레스BU에 접목시켜 SIMPAC이 세계적인 프레스 제조기업으로 우뚝 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해외 수출을 위한 PM 역할을 하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하므로 꾸준히 해온 어학 공부에도 더욱 매진할 생각입니다.

김규찬 과장 : 고무와 우레탄 학회 및 교육에 참가하거나 협력사와의 기술미팅을 통해 최신 정보를 획득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현재 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기계정비 부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도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업무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영문 과장 : 우리 회사, 우리 팀 업무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일의 재미와 업무에서의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또 성장하는 SIMPAC을 위해 규모와 조직력이 더 큰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할 요소도 두루 살펴볼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살 난 둘째 아이와 추억을 쌓기 위해 아빠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싶습니다.

정설희 과장 : 현재의 협력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협력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의 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MINI INTERVIEW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소통법'은?**

단체 카톡을 이용해 업무 일정과 이슈를 상세히 공유합니다. '정보는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심한 소통은 효율적 업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팀워크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형성에도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계나 질서를 앞세우는 대신 일상적으로 대화하듯이 편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많으신 주임이나 반장에게서는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신입사원에게선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 1회 이상 한 명, 한 명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대감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소통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 입장, 위치 등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입장은 변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마음과 의견에 교감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회사 내에서, 팀 내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면서 소통에 대한 고민은 끊임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 중요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면서 소통도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물론 상대방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지만요.

**생산 업무는
()하다**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김영일 차장

생산업무는 '제조업의 꽃'입니다. 영업, 설계, 구매 등 모든 유관 부서의 노력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는 곳이 바로 생산팀입니다.



SIMPAC 메탈BU
ROLL생산본부
ROLL생산팀
김규찬 과장

생산은 '빛나는 일꾼'입니다. 생산팀 내에서는 정말 많은 업무가 이뤄집니다. '일꾼'에는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생산팀을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SIMPAC 메탈BU
포항생산본부 생산팀
조영문 과장

생산은 '업무 단계에서 중심'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분분한 의견을 조율하고 잡아주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생산팀입니다.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 생산팀
정설희 과장

생산업무는 '소통'입니다. 영업, 품질, 구매 등의 다양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판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업무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쉽고 강력한 솔루션

슬기로운 직장생활

주 52시간 근무제와 워라벨의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따라, 업무 생산성 향상이 기업과 직장인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모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쉽고 강력한 솔루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solution 01



항상 메모하세요

메모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으며 업무에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순식간에 떠올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때 메모를 하면 그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적으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 야하기 세히치로는 메모의 3요소로 '요약·생략·압축'을 꼽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요약하고 생략해, 그 핵심을 압축해야 비로소 유의미한 메모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업무의 중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만 노트에 남게 되며, 이는 곧 업무 생산성 향상의 밑바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메모할 준비를 갖추고, 필요할 때 그 즉시 펜을 움직여 기록한 뒤, 차근차근 정리하세요. 곧 한 단계 성장한 업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메모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 1 수첩과 볼펜을 늘 챙겨 다니세요. 언제 어디에서 메모하게 될지 모릅니다.
- 2 최소한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글씨체를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 3 상대방의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 적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 4 적은 메모를 알아보기 쉽도록 키워드 위주로 다시 한 번 요약·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5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메모를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BOOK 추천 도서



메모의 재발견
사이토 다카시 지음, 비즈니스북스
메모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동시에,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메모 방법을 소개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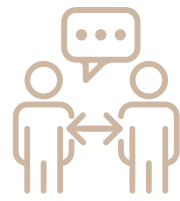


스마트폰 메모
스도 료지음, 책밭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가치 있는 메모,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solution 02

마음을 열고 소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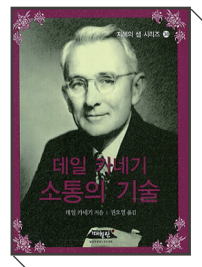
의사소통 능력과 집단지성이 혁신의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21세기는 대부분의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두루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에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소통이 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개인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이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겨야 가치 있고 미래 지향적인 소통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청'이 있습니다. 내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의도와 전문 지식을 귀여겨들어야 마음을 살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대화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집단지성을 통한 혁신을 꿈꾼다면, 이제부터라도 소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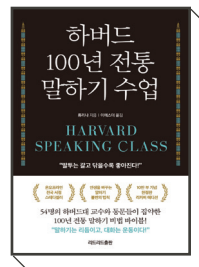
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

- 1 대화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춰야 합니다.
- 3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 4 내 생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핵심 메시지 위주로 전달하세요.
- 5 때로는 하나의 적절한 비유가 백 마디 말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BOOK 추천 도서



소통의 기술
데일 카네기 지음, 매월당
세계적 소통 전문가
데일 카네기에게 듣는
소통의 정수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
류리나 지음, 한국능률협회
하버드대 교수와 동문 54명이
이야기하는 말하기의 모든 것을
알차게 엮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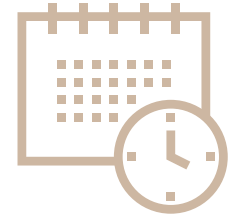
solution 03

지금 당장 시간관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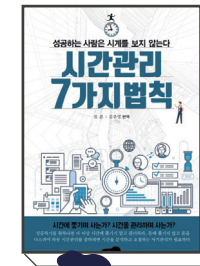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 가지 일을 해내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관리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간관리의 기본은 바로 '꼭 해야 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마련이죠. 따라서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관리에 실패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간관리의 핵심은 중요한 일을 먼저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일정의 변수를 점점 더 줄여나가는 데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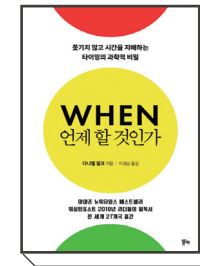
- 1 중요한 업무일수록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 2 중요한 업무를 두 번 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 3 중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명확하게 세울수록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 다이어리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일정을 정리·관리하세요.
- 5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나누면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BOOK 추천 도서



시간 관리 7가지 법칙
짐 론 지음, 백만문화사
유수의 리더들에게 시간
관리법을 가르치는 강사가
전하는 7개의 구체적
시간 관리 방법론



언제 할 것인가
다니엘 핑크 지음, 알키
시간 관리의 핵심인
'타이밍'의 개념과
적절한 실천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책





THE POWER OF PARTNERSHIP,

미래가 원하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어떤 리더와 팔로워도 혼자만의 힘으로
먼 길을 갈 수 없다.

때로는 리더가 팔로워를 이끌어주고

때로는 팔로워가 리더를 잘 따라가야 한다.

SIMPAC의 리더와 팔로워가 환상의 팀이 되어

아름다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과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

LEADER · FOLLOWER



좋은 리더? 좋은 팔로워?

모든 직장인은 팔로워임과 동시에 리더이다.

리더는 좋은 팔로워를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따라서 리더는 좋은 팔로워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팔로워의 입장에서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리더와 팔로워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보완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회사의 성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SIMPAC 사람들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번 설문 중, '나는 조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를 묻는 질문에서 SIMPAC 58%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잘 조화된다고 생각한다.'에서 SIMPAC 4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회사생활에서 나에게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는 동료가 있다'의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5%였다.

TEAMWORK



배려하고 존중하는 팀워크라는 힘

조직이 안정되려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리더와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리더와 팔로워는 기본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는 관계이다. 조직의 성과가 좋을 때 리더가 조명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뛰어난 성과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에게도 더 많은 보상이 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팔로워십은 리더의 생각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또한 리더는 팔로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것이다.

SIMPAC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응하면, '나의 일에 대한 열의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을 활기치게 만들며 즐겁게 한다.'에서 '그렇다'가 48%를 차지했다. 또한 '내가 속한 집단의 성과가 개인의 영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에서 4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회사의 성과를 위해 함께 마음을 합하는 SIMPAC 사람들의 팀워크를 엿볼 수 있었다.



GOAL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철새인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남반구로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는 예를 들 수 있다. 가장 앞에 선 기러기는 방향을 잡고 전체 그룹의 비행을 유도한다.

나머지 기러기 떼들이 날면서 우는데 이것은 선두에 있는 기러기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한다. 기러기들은 먼거리를 이동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러기가 그룹을 지어 비행할 때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무리를 지어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이라는 메시지가 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서로 귀기울여 듣는다면 윈윈할 수 체계이다. 심지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면 조직문화와 팔로워십이 변해야 한다. 함께 팀워크를 발휘하여 아름다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주어진 공동의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되어 서로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SIMPAC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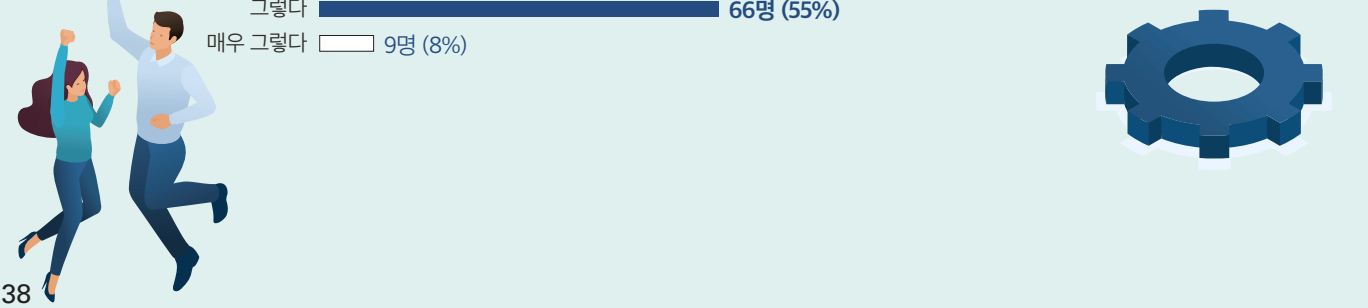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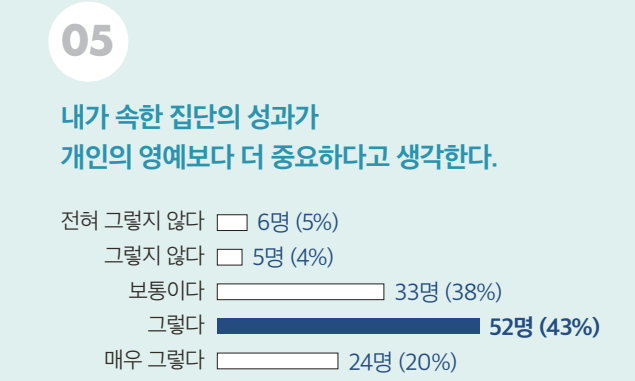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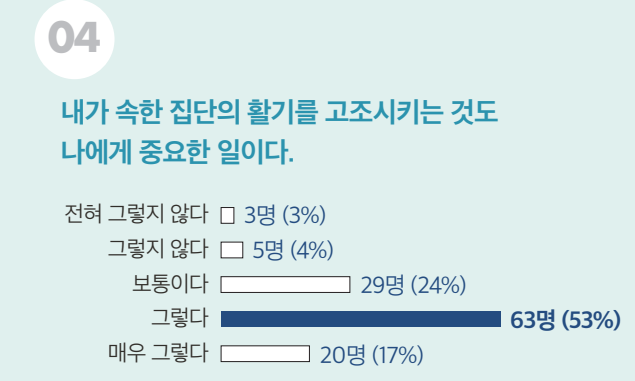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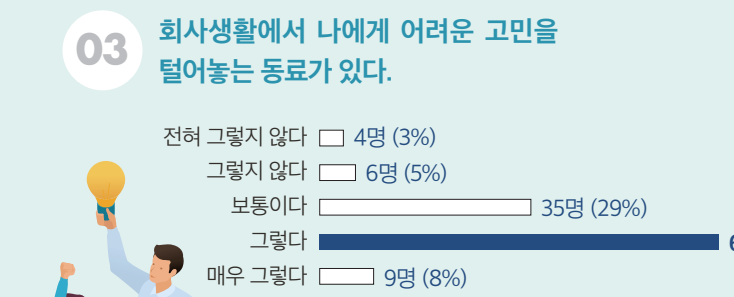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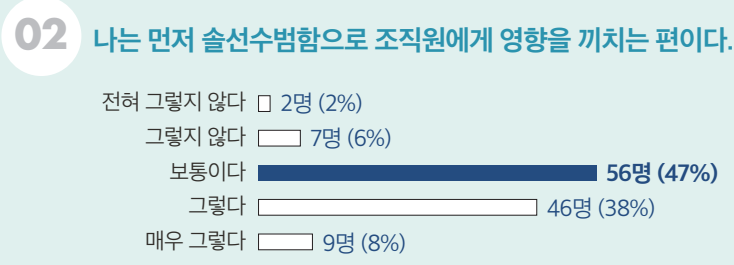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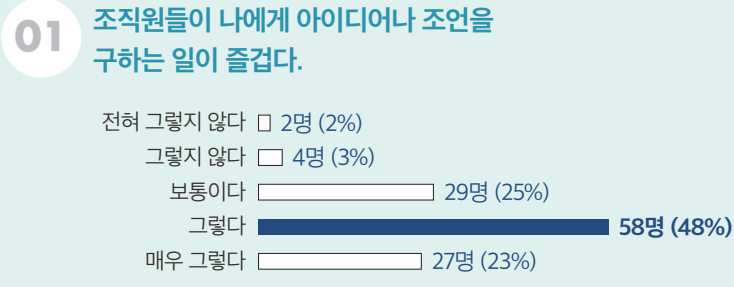
SIMPAC Now, SIMPAC人' Think

SIMPAC人들은 SIMPAC의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10월 26일부터 9일간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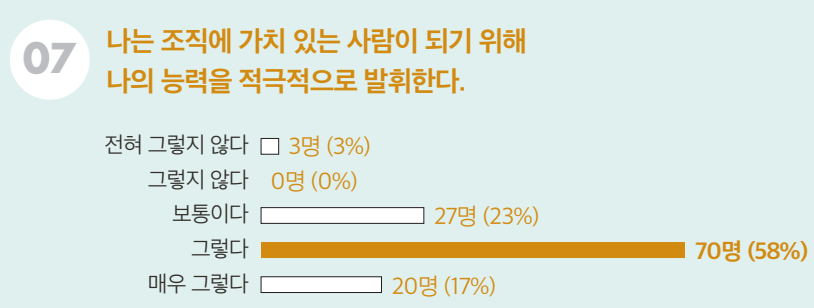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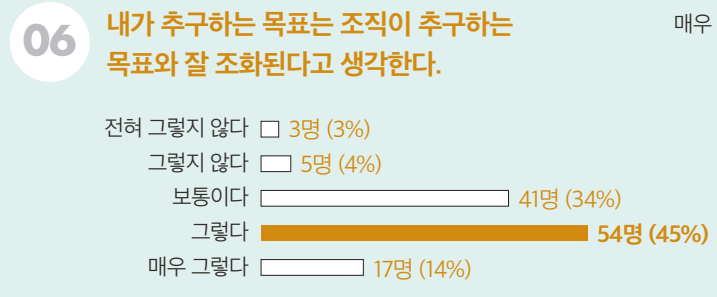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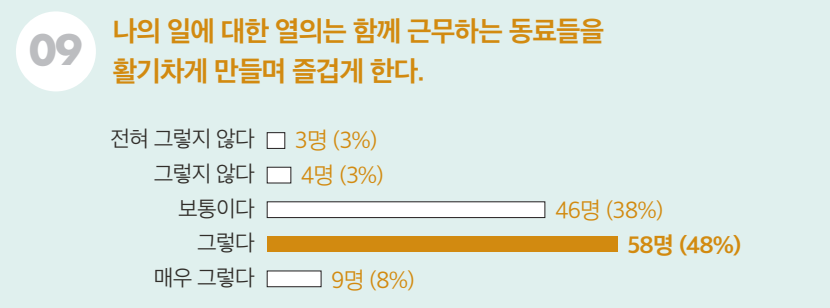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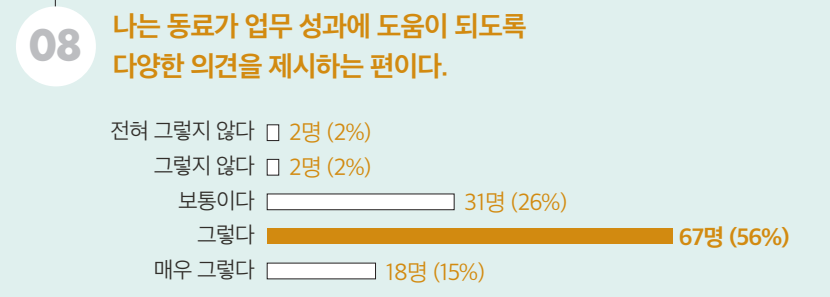
진행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 진행
기간 : 2020.10.26~2020.11.04
참여 : SIMPAC홀딩스, SIMPAC, SIMPAC인더스트리, 리스텍비즈 등
SIMPAC그룹 전 계열사 참여 (총 120명 설문 참여)



귀하가 생각하는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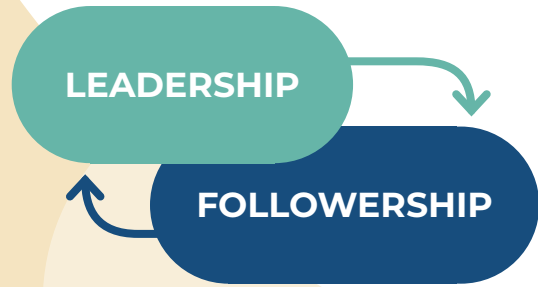


귀하가 생각하는 팔로워십



SIMPAC Now, SIMPAC人' Think

10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에 대한 심팩인들의 의견



리더와 팔로워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 많아야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들어주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는 업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좋은 팔로워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팀의 화합과 조직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칭찬과 긍정의 말을 아끼지 않는 리더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리더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관계

리더는 객관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팔로워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란 팔로워의 능력을 캐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팔로워는 자신의 능력과 실적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리더와 팔로워는 자발적인 마인드로 항상 고민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자발적인 태도를 보일수 있게, 팔로워는 리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해시킬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 동기 부여하며 함께 협업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소통'을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소통스타그램

이 코너는 사우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SIMPAC 프레스BU 전기설계팀
윤원미 사원

우리 집 세젤귀 막냉이 우유를 소개합니다♥

#반려견 #막냉이 #사랑해 #우유 #귀염뽀짝

SIMPAC-STARGRAM



SIMPAC 프레스BU 품질경영팀
유재희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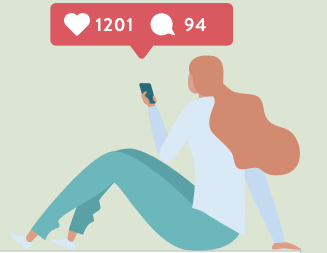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함께 살았던 고슴도치 루비를 소개합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한 성깔 했지만 밥 줄면 천사였던 고슴도치 루비예요.

#고슴도치 #루비 #보고싶을거야 #사랑해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민혜림 사원

코로나로 잘 쓰지 않던 옥상을 파티장으로 소소하게 꾸며보았다. 변신 대성공! 홈파티는 이제 항상 여기서!

#옥상캠핑 #홈캠핑 #캠린이 #옥상꾸미기 #코로나안녕 #홈바베큐 #홈파티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신재희 대리

친구들과 오랜만에 송년 모임겸 만나 회포를 풀었다.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터라 어색할줄 알았는데 어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우정을 다시 한번 다지며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송년회 #소통 #우정 #추억 #모임



우리들이야기
Congratulations!

백일을 축하합니다

2020. 10. 31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조립 2반 황지훈 선임



곧 100일인 예쁜 우리딸♡ 그동안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잘 키워서 고맙고 사랑해



탄생을 축하합니다

2020. 11. 10

SIMPAC 프레스BU 재무회계팀 조태형 과장



이플아~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고마워 ^^ 건강하게 밝게 자라자!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p>SIMPAC 홀딩스</p> <p>SIMPAC그룹 지주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p>SIMPAC 프레스BU</p> <p>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 	 <p>SIMPAC 메탈BU</p> <p>국내 Top-tire 합금철 메이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p>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p> <p>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p>SIMPAC 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p> <p>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p>리스테크비즈</p> <p>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